

남·북한 역사연구 분야의 쟁점들

근 현대사 시기구분부터 역사인식 차이

배항섭

고려대 강사

분단 50여년이 흐르는 동안 남북은 적대적인 체제 경쟁 속에서 서로 다른 역사인식, 분단된 역사를 구축해왔다. 분단된 지 50여년이 흐르는 동안 남북에서 우리 역사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져 왔으며, 통일이 될 경우 어떠한 문제들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인지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남북간의 서로 다른 역사인식과 그에 터하여 재구성된 역사상을 서로 비교하는 일은 우리 역사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통일을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남북간의 다양한 차이를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도 요청되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통일된 북한의 역사연구

북한의 경우 역사연구가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되었기 때문에 역사상이 대체로 통일적으로 정리되어 왔다. 이에 반해 남한의 경우 학자에 따라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남북한의 역사학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일은 간단치 않은 문제지만, 여기서는 남한의 경우 가급적이면 통설화되어 있는 견해들을 비교하기로 한다.

먼저 근현대사의 시기구분에 관해서다. 역사서술에서 시대나 발전단계를 구분하는 것은 역사를 인식하는 태도나 방법론, 곧 사관의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남북한 역사인식의 중요한 차이점은 시기구분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남한학계에서 근대사의 기점에 대해서는 몇가지 견해가 있지만, 대체로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1876년의 개항을 근대의 기점으로 잡는다. 반면 북한은 1866년, 1876년을 하나의 통일된 과정으로 보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프랑슘합대의 침공을 물리친 병인양요가 거족적 반침략 투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1866년을 강조한다. 북한의 근대사 기점설정이 반외세투쟁과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주체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물론이다.

현대사의 경우 남한에서는 통일된 민족국가의 수립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통일이 되는 그 날이 현대사의 출발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대체로 1945년 이후를 현대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에서도 1919년설, 1945년설 등이 제기되어 논쟁이 일기도 했으나, 주체사상이 자리잡은 이후에 우리에게 생경한, 1926년에 있었다는 소위 '타도 제국주

의 동맹'의 결성을 현대사의 기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타도'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주체사상에 의거, 김일성 중심의 항일무장투쟁사를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조되었는데, '타도'는 바로 15세 소년 김일성이 결성한 항일무장 유격대다. 현대의 시점을 이렇게 설정한 것은 이른바 유일사상 체계의 확립을 위한 전제작업으로서 혁명전통의 배타성·유일성·순수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와 직결된다.

다음으로 근대에 전개된 사건과 주요 인물에 대한 평가다. 현대사의 경우도 비교돼야 하지만, 현대사의 기점설정에서도 나타나듯이 북한의 경우 주체사상 이후 모든 연구가 탄력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특히 현대사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북한의 근대사 연구는 개항 이후 근대사를 부르주아 민족운동의 전개과정으로 설정한 위에 이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는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당위성을 확립하기 위해 그 전 단계로서 자본주의 시민혁명의 존재를 설정하려는 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갑신정변과 그 주도자인 김옥균에 대해 남한에 비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개화당의 친일적인 성향이나 일본인과의 관련문제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있다. 또 갑신정변의 정강 14개조 가운데 청국에 대해 대원군 문제를 배제함으로써 갑신정변의 부르주아 혁명으로서의 선명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남한에서도 대체적으로 갑신정변이나 김옥균을 근대민족운동의 선상에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김옥균 등 개화당이 품고 있던 사상이나 지향의 근대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정세에 대한 판단미숙과 친일본적 성향, 정변 추진과정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 강하다.

이러한 차이는 갑오개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남한과 북한이 모두 갑오개혁의 근대적 측면은 인정하지만, 진보성에 대한 평가는 북한쪽이 더 강하다. 또 북한이 갑오개혁이 이후 반일투쟁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는 것과 달리, 남한에서는 이후의 반일운동과 연결시키는 이해가 전혀 없고 오히려 개혁에 미친 일본의 영향을 강조하는 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혁명전통'에 대한 강조

이러한 차이점은 의병투쟁·독립운동에서도 드러난다. 남한에서는 의병투쟁이나 1920년대 초 무장독

북한의 역사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됐기 때문에 역사상이 대체로 통일돼 있다. 근현대사 시기구분, 근현대사에 전개된 사건과 주요 인물에 대한 평가 등에서 북한은 반외세 투쟁과 애국주의, '타도 제국주의 동맹' 등을 기점으로 시기구분하며, 주체사상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립투쟁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대체로 부르주아 민족운동으로 분류하여 그 한계를 엄격히 지적한다. 일제시기의 민족운동에 대한 북한측의 평가가 '혁명전통'의 문제와 관련이 깊은 것은 물론이다.

한편 이러한 남북 역사인식의 차이는 인물에 대한 평가에도 그대로 연결된다. 김옥균과 같이 남북간의 평가가 비교적 크게 차이나는 경우도 있지만, 다 같이 높이 평가하는 경우에도 그 기준은 대체로 서로 다른 역사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흥병도의 경우 남북에서 모두 높이 평가하는 인물이지만, 북한에서는 투철한 사회주의자로, 남한에서는 전형적인 민족주의자로 평가한다.

전봉준에 대해서도 남북 모두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남한학계가 대체로 그를 '반봉건 반외세'를 추구한 한국 근대사상 거의 최고의 인물로 평가하는 데 비해 북한학계는 상대적으로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남한학계는 농민전쟁 당시 개화파와 농민군의 역할이 실현되지 못한 점에 대해 개화파의 친일성향을 강조하는 반면, 근대민족운동의 추진주체를 개화파에서 찾고 있는 북한학계는 농민군 지도부의 한계를 지적하는 편이다.

이상 통일 이후 쟁점이 될 만한 남북한 역사학의 차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지면 관계로 단편적인 내용만 소개하고 말았지만,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역사인식의 차이와 그에 기초한 역사상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